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4~5년 전만 해도 차기 대통령 감을 묻는 설문에는 많은 사람이 정동영을 꼽았다. 그러나 그가 정작 여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도 지지율은 지금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통일업무에 관장하면서 개성공단을 성사시키는 등 점수 말 일을 꽤 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도무지 움직일 기미가 없다. 왜일까?

답은 간단하다. 이번 대선을 유권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응징의 기회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다. 많은 유권자들은 정동영 후보를 박대함으로써 노 정부에 앙갚음을 하고자 한다.

차기 인기는 '절제된 언어' 덕

그럼 노무현 정부는 무얼 그라 잘못했는가? 왜 많은 유권자들이 노무현 정부를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응징해야 한다고 여길 만큼 미워하는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한테 무엇이 노무현 정부의 실정인지 물으면 늘

라함도 심중판구는 머뭇거리다. 딱히 내세울만한 실적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이 노무현 정부를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대통령과 그 주변 분들의 언행 때문일지 모른다. 노무현 정부의 인기가 바닥인데 반해 당내 경선에서조차 좌절된 박근혜 의원의 인기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높다. 그가 내놓은 정책 대안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도 선뜻 답을 내놓는 이가 드물다. 그런데도 그가 정치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는 데는 그의 절제된 언어 덕이 큰 것이다. 그는 열 단어 이내로 하고자 하는 말을 한다. 짧은 문장에 저질스런 용어는 없다. 그의 그런 능력이 그를 품격 있는 지

말의 정치학

도자로 각인시켰다. 언어의 격이 정치인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정치권 사람들이 잘 안다.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치권에서 함부로 말을 뱉는 사람이 줄을 있고 있다는 사실이다. 며칠 전, 어느 텔런트는 정당 행사에 나가 "이회창 후보 하는 짓거리는 똤지개 두드러 맞아야 할 짓거리"라고 폭언을 했다. 그 텔런트는 세상 좋아진 것을 누구보다 고마워해야 한다. 옛날 같으면 그런 말을 하면 그날로 어느 곳에 끌려가 그야말로 똤지개 두들겨 맞았을 것이다.

말을 하더니 우리 정치관 수준을 알 것도 같다. 전에는 상대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독한 말을 해대는 일은 주로 부대변인이라는 직을 맡은 이가 도맡았다. 그런데 요즘은 모두가 부대변인이 되고 만 것인가? 마치 다투듯이 아무나 막말을 한다.

정치인 '언어의 격' 높여야

전에 한 정치인이 어느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재봉틀로 박아야 한다고 했다가 혼쭐 난 적이 있는데 요즘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품위 없는 말에 식상한 사람들이 공업용 재봉틀 생각을 하는 이가 적지 않을지 모른다. 나라 형편은 예전에 비해 몰라보게 나아졌다. 이제 그 형편에 어울릴 만큼 나라의 격을 높여야 한다. 국격을 높이는 데 누가 솔선해야 하는가? 정치인이다. 앞으로 선거를 치를 날까지 국민의 이목이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솔리게 마련인데 정치인은 상대를 비판하더라도 용어 구사에 신중해야 한다. 상대를 비판할 때 형용사나 부사를 절제하는 쪽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고려대 신방과 교수·다산연구소 제6기>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방 건설업 연쇄 도산 대책 서둘러라

최근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으로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는 이달 들어 도미노 현상을 보이는 등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방 건설업 발(發) 경제위기가 가시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한건설업협회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16일까지 부도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 13개, 전문건설업체 13개 등 26개에 달하고 있다.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10월 한 달간 부도업체 10개를 이미 넘어서며 올 들어만 102개 업체가 도산했다. 일반건설업체의 부도는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연쇄부도도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부도난 전문건설업체는 전남지역 10개를 포함해 129개에 이른다. 이 같은 지방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른 건설경기 급랭이 주원인이다. 정부의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미

분양, 미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이는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대출규제, 전매제한, 부동산 세제 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지방주택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지방 건설업에 고사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부도 업체들이 중소기업체에 국한되고 있지만 지방 대형업체들도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형업체들의 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수많은 전문업체의 연쇄 도산이 이어지고 지방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등 그 파장은 엄청나다. 정부는 지방 건설업 위기를 인안하게 봐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 투기 위험이 없는 지방의 주택정책을 차별해 적용해야 한다.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지역의 대출 및 세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부동층 20%대로 늘어난 대선정국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는 역대 대선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20%에 달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선 정국은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씨의 귀국으로 BBK사건과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선 판도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호숙이 회창 후보도 한나라당 탈당에 따른 도덕성 시비 등에 휩싸여 있다. 범여권은 더욱 한심하다. 대선후보 등록일이 임박했지만 후보들의 지지율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고 누가 최종 후보로 나설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및 문국현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대선을 보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지후보를 결정할 유권자들이 많아 부동층이 줄어드는 것이 통례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10% 초·중반까지 떨어졌던 부동층이 최근들어 20%대까지 급증하고 있다. 5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부동층은 막판 대선에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다. 부동층이 증가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기대보다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권은 정당정치와 정책대결이 실종된 채 상대방출집대기 경쟁을 하고 있다. 상대를 죽여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사생결단식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은 중요하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과 국민생활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정치가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정책과 도덕성 등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갈피를 잡지 못한 유권자들은 후회없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

NGO 칼럼

이계양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별 문제가 없음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는가.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있겠는가.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넘려있는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을 아이들 스스로는 문제가 없다고 마음을 놓고 있고, 어른들도 덩달아서 별 문제가 없음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더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

미래의 우리 사회와 역사를 책임지고 나아가 할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문제의식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본다. 몇 해 전 대광고 학생회장으로서 획일적 종교수업에 반대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강익석 군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획일적인 종교수업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획일적인 종교수업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침해된 인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청소년들의 문제의식은 이 역사의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 가는 촉매제라 할 수 있다.

문제(가?)가 되라

람이나를 막론하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다.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정상이다.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이고 비정상이다. 웃어야 할 문제인데 울고 있다면 진짜 문제 아닌가. 반대로 울어야 할 문제인데 웃고 있다면 또한 문제가 아닌가 말이다. 또 웃어야 할 문제인지 울어야 할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여 웃지도 울지도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이다. 문제의식은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절실하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문제의식은 그 자신과 그가 속한 학교, 지역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신의 문제들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생활습관에도 문제의식을 가져서 좋은 생활 습관을 길들이도록 해야 한다. 학업에도 문제의식을 가져서 학업성취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 대인관계에도 문제의식을 가져서 왕따나, 소외감보다는 원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문제의식을 가져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구조와 이 판치는 경제부문에 문제의식을 가져서 양극화 문제 등과 관련하여 본래의 정의가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한다. 난 마처럼 얽혀서 날마다 진흙탕에서 씨름하는 듯 보이는 정치에도 문제의식을 가져서 정의롭고 살맛나는 세상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간곡히 말하고 싶다. 문제의식을 가지라.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진 아이(문제아?)'가 되라고 말이다. <광주YMCA 이사>



산토끼 토끼야



말을 처음 배울 때 익히는 동요 중 하나가 '산토끼'다.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요가 '산토끼'라는 노래다. 이같은 설문 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수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뒤 이 가사를 들 때마다 좀더 연구해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해당 동물의 생활이나 습관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아야 노래도 익히면서 동물의 생활, 습관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자칫 진실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가사 중 "산 고개 고개를 나 홀로 넘어서 토실토실 알밤을 주어서 울 테야"라는 부분의 경우가 그렇다. 토끼는 보기와 달리 개 같은 동물

이다. 겨울 잠도 자지 않고 어두운 밤에 먹이를 찾기 위해 눈 속을 헤치며 다니는 동물이다. 이 동물에게는 먹이를 따로 담아올 능력이 없다. 험남(불 먹이 주머니)이 있는 다람쥐나 햄스터와 다르다. 그 자리에서 많이 먹는 방법이 최선이다. '주워 울테야'라는 가사는 맞지 않는 것이다. '토실토실 알밤을 실것 먹고 울테야' 정도로 고쳐야 동물 습성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널리 불려지고 있는 노래 가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자녀와 함께 즐겁게 부르면 좋겠다. 혹시 '어떻게 주워와'라고 물어보는 자녀가 있다면 그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hwnat@hanmail.net>

무안~광주 고속도로 '터널 명칭' 문제로 또 발목 잡혀서야

무안~광주 고속도로 공사에 수천억원이 투자됐지만 부분 준공(나주~무안 구간)에 그치고 광주까지 개통되지 못한 것은 일단 협의가 완료돼 노선이 확정된 뒤 호남대축이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사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호남대축은 현재 전 구간이 개통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지껏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상

황에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터널 명칭을 두고 또다시 문제를 삼아서는 안된다. 호남대축이 어등산 관동 터널의 명칭을 어등산터널이 아닌 호남대터널로 고집하는 것은 당초 공사 지체에 대한 반성도, 책임도 없는 주장이다. 공동체 이익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 그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종식·광주시 남구 진월동>

대학 재정수입 노린 특수대학원 남발...질적 저하 우려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아 교수를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다. 국내 대학에서 배출한 박사가 너무 많아 열심히 연구하고 학문적 성과를 낸다 해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학 입학생 가운데 석·박사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학원생 수도 인구 천명당 6.1명으로 미국보다 1.6배 많고 일본에 비해 3.6배다. 특수대학원 설립이 유행하면서 학비수입을 노리는 대학들이 성인

직장인의 재교육이라는 미명아래 경쟁적으로 학위를 내주고 있는 것이 석·박사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다. 학문적 최소성이나 전문성보다는 석·박사의 양산체제가 가깝다보니 진정한 실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누구나 따는 학위로 취급 받는 경향이 많다. 국내 학위의 질이 떨어진다 보면 그 손실은 전부 우리 학문의 질적 저하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충환·광주시 남구 구동>

無等鼓

'정신차려 한국' 지난 17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올림픽축구 최종 예선 경기가 한창이던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센트럴 아미 스타디움에는 한국팀을 향한 뜻밖의 야유성 구호가 터져 나왔다. 그것도 붉은 악마들의 외침이어서 귀를 의심케 했다. 30만원의 비용을 들여 주말을 포기한 채 전세기를 타고 응원원 200여명의 붉은 악마들은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자 짜증스러움을 그렇게 내뿜었다. 그 붉은 악마 대열에 '호랑이 감독'으로 불리는 광양제철고 기영욱 전 축구감독도 끼어 있었다. 국가대표 미드필더로 뛰는

사실 그 경기전 한국팀은 승리를 자신했다. 우즈베크 3번 붙어서 진 적이 없고 실점도 자책골 1골뿐이었기 때문이다. 박성화 감독은 공격자원이 너무 많고 박주영을 어디에 써야 할 지 모르겠다며 행복한 고민까지 늘어놓았다. 한국팀은 지난 시리아 원정경기에서 울퉁불퉁한 잔디 때문에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더니 적응훈련까지 했다. 파주 트레이닝센터중 잔디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충무구장에서 훈련을 했다. 하지만 경기는 집단무기력증에 걸린듯 답답하게 끝났다. 경기후 주장 김진규는 "정신력에 문제가 있는 선수는 바레인전에 나서면 안된다"며 동료들을 질타해 선수들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많음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대선배 황선홍도 옛그제 '대표선수들이 다들 배가 불렀다'며 '골에 목숨 걸 정도로 뛰어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내일 베이징행을 결정할 바레인과 마지막 경기에선 팬들의 분노를 기억하기 바란다. /기현호 체육·여론대처부장 kihh@

'배부른' 축구 대표팀



그런데 이날 한국팀에 대한 전문가와 팬들의 평가는 더욱 형편 없었다. '초등학교 축구수준', '박주영의 뽕축구', '단순한 공격, 허술한 수비' 등 악영이 쏟아졌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address.